第303回國會
(定期會)

平昌冬季올림픽및國際競技 大會支援特別委員會會議錄

第 12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11年9月16日(金)

場 所 國會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간사 선임의 건
2. 위원장(황우여) 사임의 건
3. 위원장 선임의 건
4.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개선·선임 및 소위원장 선임의 건

審査된案件

1. 간사 선임의 건	1
o 간사(이학재) 인사	1
2. 위원장(황우여) 사임의 건	2
3. 위원장 선임의 건	2
4.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개선·선임 및 소위원장 선임의 건	3

(10시1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신학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2차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제가 개의 선포를 하였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 유인물에서 보신 바와 같이 9월 8일자로 이명규 위원, 이종구 위원, 주호영 위원이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고 윤석용 위원, 이상권 위원, 황영철 위원이 우리 위원회로 보임되었습니다.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들부터 인사가 있으시겠습니까.

먼저 윤석용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용 위원** 장애인 체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학용** 마지막으로 황영철 위

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강원도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도 동계올림픽 지원에 여러 가지 힘을 보태 달라는 뜻으로 저를 선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20분)

○**위원장직무대리 신학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한나라당 간사로 수고해 주신 이명규 위원께서 사정에 의하여 간사를 사임함에 따라 교섭단체 한나라당에서 추천한 이학재 위원을 한나라당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이학재) 인사

(10시24분)

○**위원장직무대리 신학용** 그러면 새로 한나라당 간사로 선임되신 이학재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 있으시겠습니까.

○**이학재 위원** 선임에 동의해 주신 선배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학용** 그러면 국회법 제5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이학재 간사께서 위원장 사임 및 선임의 건에 대한 사회를 보시겠습니까.

(신학용 위원장직무대리, 이학재 간사와 사회교대)

2. 위원장(황우여) 사임의 건

(10시22분)

○**위원장직무대리 이학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황우여)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우여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은 국회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황우여)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입법조사관으로부터 잠시 보고를 듣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조사관 김민엽** 입법조사관 김민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학재**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이해봉 위원께서 우리 특별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해봉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봉 위원** 여러 위원님 잘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이학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례에 따라 구두 호선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두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 황영철 위원입니다.

황우여 위원장님께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맡으시고 사임하신 이후에 우리 당에서 이 위원회의 원만한 의사 진행과 또 활동을 위해서 이해봉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학재** 다른 추천이 없으시면……

황영철 위원께서 이해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해봉 위원을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병석 위원** 잠깐만, 재청 있냐고 물어봐야지요.

재청합니다.

(웃음소리)

○**권성동 위원** 삼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학재**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해봉 위원을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새로 선출되신 이해봉 위원장님과 사회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재 위원장직무대리, 이해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해봉** 마이크가 서서 이야기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를 동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또 의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여기 바로 옆에 5선이신 김영진 위원도, 대선배가 계십니다마는 국회 관례상 교섭단체 대표끼리 협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부덕한 제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마침 체육행정엔 한 1년 여 몸을 담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과거의 경험입니다마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 위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서울올림픽과 그리고 월드컵대회, 또 대구육상세계대회, 3개를 치름으로써 우리나라의 브랜드가,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또 3대 체전 중의 하나인 평창동계올림픽을 이제 곧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고 아시안게임이라든지 군인체육대회라든지 또는 충주 조정경기대회, 또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또 영암 포물러원 이런 대회를 우리가 다 앞으로 성공적으로 잘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평창은 우리가 세 번째 도전해서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정부와 국회와 그리고 또 각 기관, 단체, 체육계 모두 합심해서, 전 국민이 밀어서 이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반드시 지난번 세계대회와 마찬가지로 크게 성공을 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한번 높이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특별히 평창을 비롯한 각종 대회에 많은 지원이 되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덕합니다마는 회의를 운영하면서 여러분 뜻을 모아서, 뜻을 들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개선·선임 및 소위원장 선임의 건

(10시29분)

○위원장 이해봉 그러면 오늘 회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개선·선임 및 소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한나라당 및 민주당의 요

청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위원회 위원과 법안심사소위원장을 개선 및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나경원 위원·노영민 위원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이학재 위원·윤석용 위원·최종원 위원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및 개선하며, 이학재 위원을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 원내 교섭단체 대표 간에 협의가 있는 내용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회의 일정은 교섭단체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추후 통보를 해 드리겠고, 특히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활동을 개시해야 될 것입니다. 이학재 간사, 법안심사소 위원장님,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빨리……

아, 말씀 계십니까?

○張倫碩 委員 말씀 마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봉 예.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를 개최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張倫碩 委員 이해봉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회의장 명패에 관한 건입니다.

오늘 여기 와 보니까 제 명패도 아주 아름다운 한글 글자체로 이렇게 잘해 놓아서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지금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의 명패는 한글 명패와 한자 명패가 혼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의 취향이랄까 선택이랄까 나름대로 한자와 한글에 관한 철학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7대 국회에 들어와서 명패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역사나 전통 또 언어생활을 감안해서 한자교육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한자 명패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의에 와 보니까 제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한글 명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무처에서 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봉 좋은 말씀입니다. 한자 명패, 한글 명패는 본인의 뜻에 따라서 국회 본회의장에 그렇게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인 평창특위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특위 전문위원께서는 본회의에 게재된 명찰대로 그렇게 앞으로 우리 회의할 때 여기에 명찰 기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씀 안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 잠깐……

○위원장 이해봉 예, 김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우리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 존경하는 이해봉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부임하시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이해봉 위원님은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이시고 또 여야 간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서 평소에 노력을 해 오신 위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한류가 봄을 타고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지요.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잘 안 되는 것, 문화에 대한 교류, 특히 또 스포츠를 통한 교류가 이런 장벽을 제거하는 데 아주 놀라운 위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평소에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회의 이 경기지원특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중요한 사명을 생각하면서 잘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장님에 대한 리더십을 기대하겠습니다.

2주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지원을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우리가 위원회 대안으로 그렇게 채택을 해서 의결된 것,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야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었지만 그 문제가 잘 합의가 돼서 본회의 통과가 되고 앞으로 있을 국제경기에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하거나 또 동시 입장을 하거나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정부 안에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봉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더 이상하실 말씀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권성동 김영진 박병석 신학용
윤석용 이용경 이정현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장윤석 최종원
황영철

○청가 위원(1인)

임영호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전문위원 석영환
입법심의관 박명수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이명규	윤석용	한나라당	2011. 9. 8
이종구	이상권		2011. 9. 9
주호영	황영철		2011. 9. 16
황우여	이해봉		